

불자 세상보기



이병인 부산대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장

지난해 12월 초순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이 체결되어 국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지구의 자원은 무한하다는 전제에서 자연을 개발하고 자원을 남용하면서 산업화를 추구해 왔다.

새로운 기후협정이라 부르는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1.5도까지 제한하며,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

고, 개도국들의 기후변화대책을 지원하고,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사업에 매년 최소 1,000억 달러(118조 정도)를 지원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책임을 분담하여 전 세계가 기후

우리나라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안을 추진하며, 온실가스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산업계만으로는 반쪽자리 협정이 될 수 있으므로 지구에 사는 인류 모두가 동참해야만 실질적인 효력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그리하여 지금의 시점은 분명히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며, 지구전체의 공존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므로 각 개인이, 지역사회가, 국가가, 그리고 지구전체가 함께 해야 할 때이다.

그러므로 불교계에서도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앞장서서 선도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불교 내부적으로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을 실천해가도록 해야 한다.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연기의 법칙을 바탕으로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실천

지난해 파리기후협약 체결돼 불교계도 적극적 대처 필요

연기 법칙 입각한 실천 선행

조계종, 햇빛발전소 추진 기대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불교적 식자법인 발우공양과 채식은 잘 살려가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사찰내에서 단열 등 에너지관리만 잘해도

사찰에너지의 수십%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듯이 사찰의 경우에도 에너지낭비요소가 많으므로 사찰내 에너지낭비를 점검하고 LED전구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찰에서 사용하는 심야전기나 기름보일러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에서 태양광과 지열, 그리고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조계종단 차원에서 사찰 내 햇빛발전소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외부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자원과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고 절약하며, 무엇보다 국가에너지관리계획이 지속가능하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기존의 화력에너지와 잠재적 위험성이 큰 원자력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탈원전 사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사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생존을 위한 공동의 문제이기에 우리 모두의 문제로 알고 대처해 가야하며, 종교단체로서 이 시대의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 선도를 가야 한다.

불교 상장례 표준 규약 필요하다

연제부터인가 '뗏다방' 포교당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뗏다방' 포교당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위패와 불상을 판매하거나 천도재를 유도해 불의를 빚고 있다.

지역 노인들의 피해가 많아지자 충북 보은군은 최근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유사포교당', '뗏다방'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고 한다.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에도 이 같은 민원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개별 사찰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이 같은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것은 불교계에 등산이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관리제도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조계종도 부동산을 활용한 사업의 경우 종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되어있지만 불상, 위패, 천도재 등 문화적 자산의 활용에 관한 관리체제는 없다.

장사법의 개정으로 신고제가 도입되고 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불교계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약서와 약속이행서, 혹은 표준화 된 약관·규약도 없다.

한국 가톨릭의 경우 1만원씩 받던 49재 미사를 최근 무료로 진행한다고 공개했으며, 일본불교도 관장·총무 등 스님에 따른 재의 비용이 투명히 공개된다. 한국에서도 인연 용화사 경우에는 평생 위패와 재에 10만원 정액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에 편낸 <불교 상장례 안내>에 따르면 불교의 천도재는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영가에게 불법을 전하는 것이 천도재라든, 적어도 현재의 방문관대로 이뤄지는 천도재 관행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종단 역시도 이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비구니복지실천회에 거는 기대

조계종 산하 복지시설 기관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현장서 활동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바로 '한국비구니복지실천가회'이다.

이 모임은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 회장에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인 상덕 스님을 선출했다. 이번 모임의 준비는 지난해 8월 5일 제 1차 발기 회의를 시작으로 비롯됐다. 이후 총 다섯 차례 모임을 갖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서울은 물론 전국 지역서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 요청을 통해 40여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복지 포교의 보람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게 근본 취지다. 더 나아가서는 친목 도모를 통해 회원들의 위상 정립과 권익 보호는 물론 불교복지

발전에 기여하자는 게 주 목적이다. 앞으로 한국비구니복지실천가회는 '회원 시절장 워크숍' '재난구호사업' '불교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공유' '불교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비구니회도 이 모임에 대해 큰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복지수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비구니의 사회적 역할의 한 축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앞으로 한국불교비구니복지실천가 회원들이 긍지와 사명으로 모든 회의에 참석해 함께 회원 권리와 책무를 다하여 불교 복지 발전을 도모하며, 하나 된 불교복지 공동체를 이루는데 중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발언대

김천 개운사 훼손 사건

1월 17일 김천 개운사에서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이 개신교 신자라 밝힌 60대 남성이 법당에 난입해 불단 위로 올라가 각목을 휘둘러 불상을 비롯해 향로, 촛물, 목탁 등 법구를 파손했다. 잇달아 하면 발생하는 훼손에 개신교인마저도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교계와 SNS의 의견들을 발췌·정리했다.

<편집자주>

건강한 종교 대화 모임 필요



정웅기 조계종 화쟁위원회 대변인

김천 개운사에서 훼손사건이 벌어졌다. 그것도 새해 벽두부터. 잇달아 하면 발생하는 훼손사건을 보며 한국도 종교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각목을 들고 불단위로 올라가서 훼손을 자행한 60대 남성은 앞서 성당에서는 성모상을 훼손했다. 이 같은 행동은 '나의 종교만 옳다'는 그릇된 믿음에서 시작된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종교문화가 내재돼 있어 벌어지는 일이다.

항상 훼손 사건이 벌어지면 개신교는 전국민적 지탄을 받는다. 개신교에서도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내부 문화가 성찰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같은 훼손 사건을 보면서 상호성 있는 종교간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물론 한국종교평화회의나 종교지도자협의회 등 종교간 대화 모임은 있다. 하지만 배타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실질적 대화가 필요하다.

피해를 입은 불교도 개신교를 혐오하면 안되며, 건강한 개신교인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

불교인 벗들에게 죄송할 따름

한국 종교교육에 한 책임을 맡고 있는 개신교 대학의 한 교수로서 최근 김천 개운사에서 발생한 불상훼손 사건에 대하여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신학생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나 자신부터 주의 깊게 이웃종교를 바르게 가르칠 것을 재삼 다짐한다.

이 일은 결코 성서의 정신도 아니고, 우리가 스승으로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더더욱 아니다. 주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었고, 자신과 신앙과 의견이 다르다고 그를 경멸하거나 파괴하는 분은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따르려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지 정말로 답답할 뿐이다.

다시 한번 불상훼손사건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불교인 벗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송원영 서울기독교대 교수 페이스북 칼럼 >

저희 개운사의 슬픔을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사과해주신 목사님, 기독교신자님 그리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피해가 커서 복구는 여려날 걸리겠지만 보도해 주신 기독교 매체를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할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개운사 주지 진원 스님>

스님, 힌내시길 바라고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군요. <임재원>

스님 힌내세요. 저마다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 모두 제발 생각 좀 자지고 살았음 하는 바램입니다. <남상수>

불당이 훼손된 사진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유독 기독교인들이 타종교를 배척하는 것에 불쾌합니다.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타종교도 존중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상심이 크시겠지만 이제 내기를 바랍니다. <김기석>

저는 태생이 불교신자로서 범명은 범음입니다. 3년 전에는 성경공부 열심히 해서 세례도 받았습니니다. 세례명은 대건안드레아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거 아니면 저거 양 극단만 있는 거 같습니다. 정치도, 종교도, 경제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부 이런사람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진정환>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우므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빛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꿔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생전예수재는 "왜" 팔히 지내야만 하는가?
-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① 풍수지리학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